흑산도 불법 가두리 양식장 판친다

무허가 시설물 113ha…청정해역 오염

예리항 입·출항 여객선 통행 지장

신안군 흑산도 청정해역에 수년전부터 불법 해상가두리 양식장 시설물이 들어서 있으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해상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흑산도 관내 500여가구 어민들은 지난 95년부터 양식 허가를 받아 예리 연안항을 비롯해 도목·다촌리 등 해상 119ha에서 연간 2천여t의 조피볼락(우럭)을 생산해 200억원대의 소득을 올려왔다.

이처럼 해상양식업이 고수익을 올리면서 일부 어민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예리항내와 인근 비리포구 연안 해상에 113ha의 조피볼락과 전복양식장을 무단 설치, 청정해역을 오염시켜왔다.

또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 해상가두리 양식장 시설물로 예리항을 입·출항하는 쾌속 여객선을 비롯해 어선 등 각종 선박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2003년 자체 조사를 통해 불법 시설물의 90%인 양식시설 1만3천대를 철거했다. 그러나 일부 어민들은 철거에 불응한 채 다물도 등 연안에서 지금까지 불법으로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불법 양식시설물이 밀식돼 있어 인근 허가지역 양식장까지 피해를 주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대한조선, 목포 중앙고와 인력양성 협력 체결

목포중앙고등학교(교장 한남형)와 대한조선(대표이사 김충호)이 26일 산·학 협력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중앙고등학교는 조선디자인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대한조선은 인력채용, 교원연수, 산·학 겸임교사 등을 중앙고에 지원하게 된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조선업체가 고등학교와 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한 산학협정을 맺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목포 연안여객선 요금 인상될 듯

여객선사 신안 임자~지도 등 7개 항로 20% 인상 요청

공공요금의 잇따른 인상으로 서민가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목포를 중심으로 신안, 완도, 진도 등을 운항하는 여객선 요금도 대폭 오를 전망이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최근 신안 임자~지도, 해남 갈두~완도 산양항, 진도 팽목~서거차도 등 7개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사가 요금을 20% 올리겠다는 '운임(요금) 변경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원가분석에 나섰다"고 밝혔다.

여객선사측은 "지난 2월 이후 면세유 가격이 40% 정도 올라 적자 운항을 하고 있다"며 운임 인상을 요청했다.

목포해양청은 면세유 인상률 등 운항 원가를 면밀히 분석해 조만간 합리적인 인상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2월에는 목포~제주와 목포~신안 홍도 항로 운임이 각각 8% 인상됐다.

한편 전국 연안 여객선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목포 연안 여객선은 37개 항로에 67척이 운항, 연간 450만명을 수송하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 새 얼 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최선"

이용익 목포세관장

"창의와 실용을 바탕으로 한 혁신활동으로 관세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신임 이용익 목포세관장(58)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수출입업체의 애로 및 불편사항을 수렴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수사공조체제 구축으로 밀수와 불법무역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 세관장은 해남 출신으로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마산·용당·구로·여수세관장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유영희(55)씨와 1남 3녀가 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슬로시티' 증도에 팽나무 숲길 조성

우전해수욕장 입구

'슬로시티'로 지정된 신안군 증도에 팽나무 숲길이 조성됐다.

신안군은 증도면 우전해수욕장 진입로 300m구간에 무안군에 거주하는 독지가가 기증한 높이 13m, 지름 25㎝ 크기의 수령 20~30년생 팽나무 70여 그루를 심었다.

한편 신안군은 호남권 최초로 나무를 기증받아 가꾸는 '나무 고아원'을 운영, 현재 160종 1천200여 그루의 조경수를 보유하고 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선급금 받고 잠적 선원 늘어

사기죄 적용 어렵고 민사소송 땐 오랜 시간 소요

선주들 전산시스템 등 대책 촉구

선급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선원들이 늘면서 선주들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목포와 신안 등 전남 서남해안 선주들에 따르면 최근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선원 확보를 위해 직업소개소에 2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선급금만 받은 뒤 잠적하는 사례가 늘면서 선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출항을 앞두고 일부 선원들이 유흥주점의 바가지 요금으로 수백만원의 술값을 내지 못해 선주들이 술값을 대신 지불하고 배에 승선시키는 경우도 반복되고 있다.

선주들은 선급금을 받고 선원들이 잠적해도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재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거주지 불확실 등으로 승소해도 실익을 거두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주 김모(55)씨는 "선급금을 떼여도 현행법상 사기죄 적용이 어려워 이를 악용하는 악덕 소개업소와 선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기름값 폭등에 어획이 부진한데다 구인난까지 겹쳐 선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선주협회는 "선원들이 선급금만 챙기고 타지역으로 잠적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승·하선 실태파악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州日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동부취재본부	(061)908-8111	목 포	(061)276-9200	나주시	(061)332-5544
여 수	(061)653-8444	강 진	(061)434-6830	나주군	(061)332-7764
광 양	(061)792-8111	무 안	(061)452-8535	담 양	(061)383-8111
순 천	(061)746-8111	신 안	(061)243-3758	영 암	(061)473-2340
고 흥	(061)842-2121	완 도	(061)554-6677	장 성	(061)392-2100
구 례	(061)783-8111	영 광	(061)351-0055	장 흥	(061)863-8822
곡 성	(061)362-8111	진 도	(061)543-0100	화 순	(061)374-4423
보 성	(061)853-9700	함 평	(061)324-8111	광 산	(062)944-0444
		해 남	(061)534-5151		